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 서로 덕을 세우라

[롬 14:1-2]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은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주후 49년경,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려 오랫동안 토론한 후에 이방인 신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단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게 하자고 결정했었다(행 15장).

로마서는 주후 56년경에 쓰였다고 보는데,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 소아시아와 마케도나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에 알려졌지만 멀리 로마 교회 안에는 음식과 절기 법에 대해 아직 지식과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었다. 연약한 자들은 옛 습관에 젖어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이라고 본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 성경에 명료하게 계시된 진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분명한 진리들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진리의 지식과 믿음의 정도에 따라 사람마다 이해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때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포용하고 바른 지식에 이르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3-4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을 때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하나님께)(전통본문) 있음이니라.

우리는 특히 음식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받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그들을 받아야 할 것이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판단하

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들의 서고 넘어짐이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고, 그들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세우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형제의 부족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5절]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음식 문제뿐 아니라 절기 문제도 그렇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율법대로 절기들을 지키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실상 그런 의식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16-17에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된(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에서, 본질적이지 않고 불명료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각각 개인적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교훈했다고 본다. 22절에서도 그는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다.

[6절]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날을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지 않고(전통사본)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의 의(義)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을 위해 살 것이다. 음식과 절기에 대한 개인적 확신이 어떠한지 간에, 그들은 다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다.

[7-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것임)이로라.

구원 얻은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을 위해 산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주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구원 얻은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마땅하다. 성도의 삶의 목

표와 죽음의 목표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는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15에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 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했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다. 그는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확증되었고 이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를 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그를 위해야 한다.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이다.

[10-12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그리스도)(전통본문)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사 45:23).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直告)하리라(아티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요 우리는 다 그의 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판단치 말고 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고후 5:10). 하나님께서는 심판관 다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다(요 5:22).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형제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판단치 말아야 한다.

[13-14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깨끗지 않은)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깨끗지 않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깨끗지 않으니라).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형제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태도이다. 우리가 상대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시험과 장애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먹는 문제에 관해 무엇이든지 스스로 더러운 것이 없고 더럽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더럽다고 말하였다. 그는 디모데

전서 4:4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리낌으로 먹는 음식은 사람의 양심을 더럽게 만든다.

[15-16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음식 자체가 더럽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랑이 없이 지식만 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믿음 약한 형제를 근심케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예수께서 믿음 약한 자를 위해서도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음식 때문에 약한 자의 믿음을 잃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되 남에게 오해나 상함이나 거리낌을 주지 않으면서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사랑으로 해야 한다.

[17-18절]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희락 임이라). 이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인정)을 받느니라.

천국에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이 중요하다. 구원 얻은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지금 이것들을 어느 정도 누리다가 장차 천국에서 충만히 누릴 것이다. 구원 얻은 성도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실제로 의롭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다(롬 6:19, 22). 또 예수께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셨다(요 14:27). 평안의 주께서는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살후 3:16). 또한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해야 한다(살전 5:16).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다(갈 5:22). 우리는 세상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린다. 또 의와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것이다.

[19-21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힘쓰지(전통본문).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남에게 거리낌을 주면서(NASB, NIV) 먹는 사람에게는 약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느)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느)(전통본문)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덕을 세운다’(건덕, 健德)는 말은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서로 화목하며 다른 사람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우리는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 즉 영혼 구원의 일

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지만, 거리낌으로 먹는 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에게 거리낌을 줌으로써 그를 범죄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사랑과 건덕(建德)의 원리이다. 이런 정신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13에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고 말하였다.

[22-23절]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전통사본에는 롬 16:15-17이 있음.)

우리는 신앙에 본질적이지 않은, 중요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들에 대해 개인적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래서 거리낌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믿음으로 행치 않고 거리낌으로 음식을 먹는 자는 범죄하게 된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개인적 확신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평하지 말고 용납해야 한다(1-3절).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들,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구원 등에 관한 교리들은 확실하고 일치된 생각을 가져야 하지만, 비본질적 문제들은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신 줄 알고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신앙의 모든 문제에 대해, 특히 비본질적 문제들에 대해 개인적 생각과 확신을 가져야 한다. 5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22절,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셋째로,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영광이어야 한다(7-8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위해 살고 죽어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화목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19절).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하고 다른 이들의 믿음을 허물거나 약하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본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강조한다(3, 9, 14, 16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온갖 압제와 학대를 받았었다(3, 1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손의 권능으로’(3, 14, 16절), ‘능하신 손으로’(9절)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 특히 마지막 장자 재앙이 아니었다면 애굽 왕 바로는 결코 그들이 떠나게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해방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고 말씀하셨고, 애굽에서 나오던 그 날 밤에 행하게 하셨던 규례, 즉 누룩 넣은 떡을 먹지 말고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계속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맹세하셨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될 만한 아름다운 땅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아빔월 즉 1월 14일의 절기인 유월절과, 또 1월 15일부터 7일 동안의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때 무교병 즉 누룩 넣지 않고 만든 떡을 먹어야 했고 제7일에 여호와께 성회로 지켜야 했다. 또 그들은 7일 동안 유교병[누룩 넣은 떡]을 그들의 처소에도 있지 않게 해야 했고 누룩도 그들의 경내에서 보이지 않게 해야 했다. 또 그들은 이 절기의 뜻을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말해주어야 하였다.

하나님께서 또 이 규례를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9절의 ‘기호’라는 원어(오스)는 ‘표’(sign)라는 뜻이며, ‘표’라고 번역된 원어(직카론)는 ‘기념물’이라는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사건과 하나님의 구속(救贖)의 그 은혜를 해마다 잊지 말고 기억하며 이 규례를 지켜야 했다.

[11-16절]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모세는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되면 그들은 사람이나 가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고 반복하여 강조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양으로 대속(代贖)하고 그들의 모든 장지는 다 대속하라고 했다.

주일오후설교 무교절, 초태생, 하나님의 인도하심

[출 13:1-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또 장차 자녀들이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고 묻거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바로가 강박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사람의 장자로부터 기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주며 이것을 너희의 손의 기호와 너희의 미간(미간의)의 표로 삼으라고 하라고 하셨다. 16절의 ‘표’라는 원어(토타꽃)는 ‘머리 띠’라는 뜻이다.

[17-22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나온 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 길은 몇 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리라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적합한 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이었다. 그것은 홍해의 광야 길이었다. 또한 그 길은 뒤쫓아올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실 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하시는 첫 과정의 길이기도 했다. ‘항오를 지어’라는 원어는 ‘전투대형으로’라는 뜻이다.

애굽의 아들 요셉은 죽기 전에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녕 돌아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리라고 말하며 그들이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갈 것을 맹세시켰었다(창 50:24-25). 모세는 조상들로부터 전달되어 내려온 요셉의 그 맹세를 기억하여 그의 해골을 취했다. 요셉의 유언도 놀랍지만, 그 유언을 지키는 모세는 확실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숙곳에서 출발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 행하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어 밤낮으로 진행케 하셨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참으로 신기한 인도하심이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노릇하던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원하셨다. 큰 구원을 체험한 그들은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했다. 사람은 무지한 짐승과 같아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은 후에도 그것을 잘 잊어버린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에 살면서도 창조주께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 모르고 산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사람들과 가축들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고 또 매년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다. 사람의 만아들이나 짐승의 첫 새끼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애굽에 내리셨던 열 가지 재앙들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을 기억하게 한다. 또 사람의 만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는 가장 좋은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또 무교절은 애굽에서 급하게 나온 일을 기억케 하는 절기이다. 유월절 어린양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그들이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은 애굽에서 바삐 나왔음을 기억케 한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었다. 또 그들은 그 절기의 7일 동안 처소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누룩 없는 삶, 즉 죄를 멀리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보인다. 성도는 성화에 힘써야 한다.

특히, 신약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큰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고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평생토록 기억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길로가 아니고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고, 광야 40년 동안에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17-22절).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이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순응하며 따라가면 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약성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이다(롬 8:14). 성도에게 주신 모든 현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롬 8:28).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된다. 신약성도는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계 14:4).